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2012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전 은 혜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경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전 은 혜

전은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2월



주 심 문학박사 권연희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희숙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이경화 (인)

목 차

목 차	i
표 목 차	iii
Abstract	iv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6
가. 언어통제 유형	6
나. 우울	6
다. 충동성	7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언어통제	8
가. 부모-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	8
나. 언어통제 유형	11
2. 아동우울	18
3. 충동성	23
가. 충동성의 개념	23
나. 아동기의 충동성	28
4.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우울 및 충동성과의 관계	31
가.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우울	31
나.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충동성	32

Ⅲ. 연구방법	36
1. 연구대상	36
2. 연구도구	37
가. 언어통제 유형 검사	37
나. 아동우울 검사	38
다. 충동성 검사	40
3. 연구절차	40
4. 자료처리	41
Ⅳ. 연구결과	42
1. 예비분석	42
가. 분석대상의 언어통제 유형 집단 분포	42
나. 분석대상의 우울감 및 충동성의 측정치 분포	43
2.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의 차이	47
3.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충동성의 차이	49
4.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	51
Ⅴ. 논의 및 결론	53
1. 논의	53
2.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60
부록-설문지	70

표 목 차

<표 1> 언어통제 유형과 언어자료의 예	16
<표 2> 분석대상 현황	36
<표 3>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38
<표 4> 우울의 하위요인 신뢰도	39
<표 5> 소속 학교의 급지 및 소속 학교, 학년, 성별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의 차이	42
<표 6> 우울감 및 충동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43
<표 7> 소속 학교의 급지 및 소속 학교, 학년, 성별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44
<표 8> 소속 학교의 급지 및 소속 학교, 학년, 성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46
<표 9>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47
<표 10>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의 일원분산분석	48
<표 11>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충동성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49
<표 12>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충동성의 일원분산분석	50
<표 13> 언어통제 유형별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	51

Influences of Mother's Verbal Control Style on
a Child's Depression Levels and Impulsiveness

Eun Hye Je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are to provide a guide for parents to use proper language by analyzing differences of how the mother's verbal control style affect on a child's depression and impulsiveness, and to present fundamental knowledge to have a proper growth development by reducing the depression and impulsiveness of a child.

Surveyed 136 male and female elementary students with grade 5 and 6, and the analysis of the data has been done with SPSS18.0 program.

According to mother's verbal control style, Pera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 has been applied to find out what the corelation between a child's depression level and impulsiveness, and One-Way ANOVA has been implemen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a child's depression level and impulsiveness.

The results of the studies are as followed:

Firstly, as a outcome of the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s of the depression levels according to mother's verbal control style, depression levels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the verbal control style.

Through this result, we acknowledge that there is a meaningful increase in child's depression when the mother uses imperative verbal control style rather than rank directional or personality directional verbal control style.

Secondly, as a outcome of the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s of the impulsiveness according to mother's verbal control style, impulsiveness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the verbal control style.

As no meaningful differences appeared in paired-groups in post verification, we acknowledge that the differences among three styles could be ignorable even there were little differences.

Thirdly, as the result of the studies about the co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impulsiveness of child according to mother's verbal control style, positive relationship has been shown between depression level and impulsiveness.

As a outcome of this result, the child with higher depression has higher impulsiveness and vice versa in all the cases of verbal control style.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an acknowledge the depression and impulsiveness increase when mother uses imperative verbal control style.

Therefore, programs to cure students' depression and impulsiveness with pre-diagnosis should be implemented in schools widely, and must provide more chances, by developing parents training programs, for parents and children to learn communication skill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최초의 장소로 부모는 자녀가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자녀 발달의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출생과 더불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주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성격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은 아동이 출생 후 최초로 접하는 직접 환경이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직접 자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자극과의 중개자이다. 아동 후기는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화 인자로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동을 양육할 때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지적, 정의적 특성을 아동들에게 심어 주게 되기 때문에 코페니우스가 모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며, Schaffer(1977)는 특히 어머니는 아동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언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어머니의 언어 환경을 강조하였다.

Bernstein(1971)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 작용을 어법(Linguistic codes)이라는 언어유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회계층에 따라 사용하는 어법에 차이가 난다고 보았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통제와 양육 방침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지

위 지향적 가족은 아동의 사회화가 역할기대에 의해 통제되어지기 때문에 제한적 어법이 주로 쓰이는 반면 인성 지향적 가족은 의사결정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아동 개인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동의 사회화를 돕는 발전적 어법이 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Bernstein의 언어모형을 기초로 Gumperz(1973)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자녀에게 역할 재량권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에 따라 언어통제 유형을 명령적 통제, 지위 지향적 통제, 인성 지향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Gumperz의 접근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가 아동의 역할 재량권을 무시하고 신체적, 언어적 강제나 명령만을 사용하는 명령적 통제를 하느냐, 개인의 특수한 또는 보편적인 지위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지위 지향적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아동의 특성에 따라 역할 재량권이 부여되고 개인의 특성, 의도, 동기를 중요시하는 정교한 어법을 사용하는 인성 지향적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지적, 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언어 사용과 아동의 정의적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자들 중 박경민(1995)은 명령적 언어통제를 많이 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우울 성향이 높고,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우울 성향이 낮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영화(1998)는 어머니로부터 명령적 언어통제를 많이 받고 자란 아동에게서 우울·위축 성향의 문제행동이 두드러진다고 하였으며, 김리은(1996)은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중 명령적 언어통제가 아동의 우울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정숙(2011)은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중 명령적 통제가 자녀의 우울과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하였다. Amant와 Bullter(1984)는 우울한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관찰 연구에서 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지배

적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통제가 강한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Poznanski와 Zrull(1970)은 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고 벌을 주고 자녀와 분리되어 있으며, 자녀의 흠을 잡고 자녀를 무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아동의 역할 재량권을 무시하며 신체적·언어적 강제나 명령만을 사용하는 명령적 통제유형은 아동의 우울과 관련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김인향(1997)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역기능적인 아동은 개방적인 아동에 비해서 우울 수준이 훨씬 높고, 그 영향력 또한 크다고 하였으며, 이정순(1993)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아동은 높은 아동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녀의 우울 성향에 관한 임점숙(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더 우울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승연경(2000)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우울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연구들에서 검증되고 있고, 아동의 우울은 낮은 학업 성취(손희준, 1987; 이영옥, 2006; 한유진, 1993)나 교우관계의 어려움(안윤숙, 2001; 조종현, 1980), 자살(김성희 2009; 신민섭, 1993; 김희수, 2011; 류희정, 2010; Groholt, Dahl, Elstad, 2000; Wild, et al., 2004)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울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후속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부분의 가정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 간의 의사소통 환경, 특히 언어통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학습이나 주의 지속이 필요한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며 충동적인데, 충동성은 최근 많은 아동들이 보이고 있는 문제행동 중 하나이다. 충동성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성격특성(Eysenck & Eysenck, 1985)으로, 위험이나 불이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차원 혹은 반응 시간이 빠르고 행동에 대한 제지를 잘하지 못하며 미래 상황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계획 능력의 결여(Gray, 1987)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부모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특성들이 자연 소멸되지 않고 학업성취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행동은 어릴 때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충동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터넷 사용(류합남, 2003; 박완석, 2011; 이은영, 2010; 이정숙, 2004)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김효선, 2002; 박은정, 2008; 장혜영, 2004)과 관련지어 많이 되어왔다. 하지만 부모 변인도 충동성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 부모와 양육태도와 충동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정재희, 2000)를 살펴보면 자녀는 아버지가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대할수록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운동충동이 낮아지고,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고, 성취적,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즉흥적 행동을 하는 운동충동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안은아, 2008)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충동성이 높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수록, 비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충동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충동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특성이라고 한다면 충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 특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선행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아동의 충동성이 이러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 및 가족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고 설문조사의 응답방식에 익숙하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즉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 중 아동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언어 사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녀들이 느끼는 우울 및 충동성을 감소시켜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충동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언어통제 유형

언어통제란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양식을 말하며, 이러한 언어적 표현 양식을 아동에게 부여하는 역할 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을 언어통제 유형이라고 한다(Bernstein, 1971). 본 연구에서는 언어통제 유형을 Bernstein의 제한된 언어모형과 발전된 언어모형에 기초하여 Gumperz(1973)가 분류한 명령적 통제, 지위 지향적 통제, 인성 지향적 통제 유형으로 규정한다.

나. 우울

우울은 불안과 함께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 문제 중의 하나(Davison & Neale, 1982)로서 병(우울장애), 증상(우울증), 또는 일반적인 기분상태(우울감, 우울한 기분)로도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우울검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동우울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특징이나 증상들을 망라하면서 보다 심리 측정적이며 타당한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배유진(2009)의 아동우울척도

단축형 문항을 통해 얻은 점수로써 아동의 우울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다. 충동성

충동성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성격 특성(Eysenck & Eysenck, 1985), 위험이나 불이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차원 혹은 반응 시간이 빠르고 행동에 대한 제지를 잘하지 못하며 미래 상황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계획 능력의 결여(Gray, 1987; 김선철, 2007, 재인용)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충동성이란 Eysenck(1984)의 검사를 이현수(1985)가 번안하고, 이주식(2003)이 수정, 보완한 문항을 통해 얻은 점수로 규정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언어통제

가. 부모-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

가정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간 발달에 중요한 교육적 환경이다. 가정환경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와 평생 지속되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자녀의 인지, 문제해결방법,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성역할, 자아존중감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도혜숙, 1997).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생각, 태도,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 주는 핵심요소로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 역시 부모의 언어형태로 표현된다. 즉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언어를 통해 그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특징적인 행동양식을 내면화하고 인지적·정의적인 활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촉진시켜 나간다(임규관, 2001).

부모의 언어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의적 발달과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유아의 정서발달의 저해는 아동기를 거치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인간관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동일하게 인성 지향적일 때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나고(이진성, 2006), 어머니의 통제유형이 인성 지향적일 경우 명령적이거나 지위 지향적일 때보다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다(김선홍, 2001; 김현숙, 2000; 박문옥, 2007; 박혜경, 2000; 이현이, 2001; 최연국). 또한 부모가 인성 지향적 통제유형을 사용할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고(고영자, 1999; 김여가, 1997; 배정미, 2006; 이수희 2008; 이순재, 1994; 전희선, 2004; 차경숙, 1997; 허태연, 2008),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박민정, 2004; 배정미, 2006). 부모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경우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낮아지기도 한다(김지현, 2010).

부모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Gorden(1975)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형태를 ‘너-전달법(You-message)’과 ‘나-전달법(I-message)’로 구분하였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정을 수용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자녀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가치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대화 방법으로 ‘나-전달법(I-message)’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대답을 가져오는 ‘너-전달법(You-message)’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동의 행동을 비판하고 질책하는 ‘너 때문에’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반면 ‘나-전달법(I-message)’은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자녀를 탓하지 않고 단순히 자녀에 대한 느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비판, 질책, 훈화하기보다는 협동을 구하는 태도로 자녀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전달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화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부모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녀가 방어적이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이숙, 우희정(2002)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아동에게 전달하는 말에 따라 별, 자연적·논리적 결과로 나누어 말하였다. 별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자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훈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용되는 언어로는 권위의 강조, 도덕적 판단, 과거 행동의 강조, 공공연한 무관심과 위협, 순종의 요구가 있고 이에 따르는 결과는 아동의 반항, 양갈음의 욕구, 죄의식, 열등감, 두려움 등이다. 반면 자연적·논리적 결과는 부모가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거나 규칙이나 규범을 논리적으로 이해함으로 자녀 스스로 깨닫고 교훈을 배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사용되는 언어로는 사회 질서의 강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논리적 설명, 행위와 행위자의 분리, 현재와 미래 행동에 관심, 선택권 부여 등인데 이에 따르는 아동의 결과로는 협동, 타인과 자신에 대한 존경, 자율, 신뢰, 수용된 느낌 등이다. 자연적·논리적 결과는 아동에게 부모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Ginott(1972)는 대화의 유형을 무익한 대화와 새로운 대화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거리감이 있고 부모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며 자녀는 부인과 변명을 하는 형태의 단절된 대화를 말하는 반면 후자는 자녀의 자존심을 존중해주고 자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화 방법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느낌을 이해하고 동시에 자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도혜숙, 1997).

한편,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는 아동의 가정에서는 불일치되고 상반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가 부적응 행동

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서영숙, 1989). Hess와 Shipman(1965)은 부모가 어떤 언어 양육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아동의 지적발달과 도덕적 발달이 좌우되고 마침내는 아동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Olim(1970)은 사회적·교육적 결손으로 이어지는 행동은 아동의 초기에 주로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고찰하였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가정의 언어모형이며, 이러한 언어모형은 유아의 언어발달의 근원이기 때문에 언어모형이 취약하다는 것은 지적 발달의 결손을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정원식, 1984).

Clezy(1977)는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 그리고 아동이 받아들이는 언어적 반응 정도에 따라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고, Schaffer(1983)는 부모의 언어 환경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언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나. 언어통제 유형

언어통제 유형이란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양식을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역할 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Bernstein, 1971). 아동의 언어, 인지 발달에 미치는 언어적 환경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Bernstein(1971)은 부모가 아동에게 어떠한 대화형식을 취했느냐가 아동의 사회적 지각과 범주를 결정한다는 사회

언어학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언어의 차이는 지각 과정 뿐 아니라 지각의 차이를 유도하는 데, 이것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조직하고 대상세계에 대한 지각 방식을 결정짓는다는 것으로 언어는 개인과 개인의 행동을 중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언어의 형태가 개인의 행동을 방향 지워주고 그 행동의 방향은 다시 그 언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조병숙, 2003). 이는 사회구조에 따른 언어의 형태가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를 결정짓고 그 행동이나 사고가 다시 언어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본다. 즉, 각 가정은 독특한 구어의 형식이 있고 부모들이 사용하는 구어의 형식은 독특한 인지적, 정의적 및 평가적 표현방식을 가지며 자녀들은 이 형식을 매개로 하여 사회 구조를 내면화 하게 된다는 것이다.

Bernstein은 이때 가장 주요한 매개변인으로서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어법(linguistic code)이라는 언어유형으로 나누어 정교한 어법(elaborated code)과 제한된 어법(restricted code)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Bernstein, 1971). 각 어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교화 된 어법은 어휘적 분화가 많으며 말하는 사람의 뜻하는 의도를 외현적으로 표현하고, 말할 때는 광범위한 구분에서 언어를 선택하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문법적 어순과 구문을 사용하여 개인의 감정이 문장의 내적구조나 문장사이의 관계에 명백히 드러나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인물,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인의 태도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주로 중류층에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제한된 어법은 상례적이고 한정적이며, 압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말들은 문장의 형태가 짧고 단순하며 문법적으로도 불완전하고 언급하려는 주제를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종속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화할 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감정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노동계층에서 사용한다

고 보았다(송수원, 2002).

그는 가족의 유형을 가족통제 방식에 따라 지위 지향적 가족(status-oriented family)과 인성 지향적 가족(person-oriented family)의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였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통제와 양육방침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지위 지향적 가족은 아동의 사회화가 역할기대에 의해 통제되어지며, 개인의 의도나 동기에 대한 언어적 탐색을 허용하거나 장려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지위 지향적 가족 체계에서는 제한적 어법이 주로 쓰이게 되는데, 제한적 어법은 구문의 융통성이 없고 구문의 형식이 짧고 제한되어 있어 화자의 의도나 감정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며 폐쇄적인 의사소통체계(closed communication)를 취한다.

반면에 인성 지향적 가족은 역할체계에 각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고 의사결정이 지위나 역할기대보다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에는 발전적 어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의사소통이 개인화된 어법으로 특별한 상황, 주제 또는 대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별되고 정확하게 설명되는 어법을 의미한다. 이 어법은 아동의 관점, 의도, 특성을 중요시하고 부모가 아동 개개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동의 사회화를 도울 수 있게 하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체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Bernstein의 두 언어모형에 기초하여 Gumperz(1973)는 가정에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적 설명이나 법적인 언어통제 유형을 명령적 통제, 지위 지향적 통제, 인성 지향적 통제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의 분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언어 표현에서 자녀에게 역할 재량권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령적 통제유형은 아동의 역할을 규율에 기준을 두고 주로 구체

적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아동에게 포기 또는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벌을 내리는 등의 통제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명령적 통제 유형에서는 자녀에게 역할 재량권을 거의 주지 않으며 ‘조용히 해.’ ‘내버려 둬.’ ‘가서 자.’ 등과 같은 제한적 어법을 주로 사용한다.

둘째, 지위 지향적 통제유형은 사회의 보편적 지위에 내재된 규범에 따라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지위, 위치 및 규준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흠치는 것은 나쁜 일이야.’와 같이 하위 문화적 규범을 행동의 기준으로 하는 ‘보편적 규칙’, ‘형이 동생을 때리면 되겠니?’, ‘6학년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와 같이 유아의 연령, 성 등을 행동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지위적 규칙’, ‘아버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와 같이 가정의 독특한 상황 또는 관계성에 따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규범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적 규칙’, 그리고 ‘우리 집 귀가 시간은 8시야.’와 같이 특정 시간, 장소, 상황에 제한을 두는 ‘한정적 규칙’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인성 지향적 통제유형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아동에게 행동의 결과가 아동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인성 지향적 통제유형에서는 규칙은 아동이 선택하는 것이며 부모는 자녀가 그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해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제공해 줄 뿐이다. 그러므로 아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가 인지하고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며,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네가 결석하면 선생님이 무척 걱정하실텐데…….’와 같은 언어통제가 이에 속한다. 인성 지향적 통제유형에는 부모 지향적 통제와 아동 지향적 통제, 타인 지향적 통제가 포함된다.

Gumperz(1973)는 영국사회에서 어머니가 자녀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는데 <표 1>은 언어통제 유형과 그에 따른 언어자료의 예를 밝힌 것이다.



<표 1> 언어통제 유형과 언어자료의 예

통제	통제방법 및 준거		언어자료의 실례
명령적 통제	• 체벌		
	• 언어적 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 자꾸 그러면 때려 줄거야.
	•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
지위 지향적 통제	• 지위 규범	-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 만한 애가 누가 그런 행동을 하니.
		-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애들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
		- 상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생이 형한테 대들면 되겠니.
	• 사회 및 보편 규범	-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되어 있어.
		-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짓이야.
인성 지향적 통제	• 부모 중심	-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너보고 착하다고 하겠니.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가 자꾸 그러면 아빠가 싫어하실 거야.
		- 권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의 입장에서는 너의 행동이 옳다고 하지 않으실 거야.
	• 타인 중심	-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가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질 텐데.
	• 아동 중심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의 뜻은 잘 알겠지만…….

<출처> Gumperz. J. J. (1973). *Direction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pp. 485-489). London: Holt, Rinehart & Winston.

이러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에 관하여 부모가 사용했다고 인지한 언어 통제 유형과 자녀가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과의 일치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부모가 사용했다고 인지한 언어통제 유형과 자녀가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은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격성, 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가 사용했다고 인지한 언어통제 유형이 아닌 자녀가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이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말을 할 때, 자녀는 언어의 내용 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 부모의 목소리, 억양, 얼굴 표정 등을 종합해서 받아들이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가 의도한 언어통제 유형과는 다른 통제유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부모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한 후에 자신이 바람직한 통제유형을 사용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가 의도하거나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이 아닌, 아동이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이다(김여가, 1997).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순수하고 애정적이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이다. 아동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와 어법을 배우게 되는데 상호작용이란 그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아 교류가 일어나는 관계이므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언어통제 유형이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이나 다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단시간에 통제가 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교육의 영향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정의 심리적인 환경 중 언어통제 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우울

우울은 불안과 함께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Davison & Neale, 1982). 병(우울장애), 증상(우울증), 또는 일반적인 기분상태(우울감, 우울한 기분)로도 쓰인다. 흔히 슬픔이나 불행감도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되지만, 슬픔이나 불행감은 일시적인 슬픈 기분과 상태로 분명한 이유와 대상이 있고 지나치게 병적으로 지속하지 않는다. 우울증은 슬픔이나 일시적인 기분과 달리 명백한 질병으로, 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분명한 병이고, 다른 질병이나 상태에 동반하여 증상으로 우울증이 존재하기도 한다(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6).

Freud는 우울을 일으키는 잠재성은 구강기에 이미 형성된다고 하였다. 구강기에 고착된 사람은 이후의 심리적인 발달과정에서 본능적으로 구강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며,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격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이러한 의존적인 사람이 애정의 대상을 상실하면 이 대상에게 가지고 있던 양가감정과 죄의식이 지나치게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 우울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이용남, 1998).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은 Freud의 정신역동적 모형을 지지하였는데 정신역동적 모형에서는 인지적 과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Beck의 연구 이후 거의 대부분 연구들은 인지적 접근에서 이루어졌으며,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접근 방법은 경험적 연구의 용이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인지적 접근법들 중 오늘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eck(1967, 1976)의 인지이론, Seligman(1974, 1975)의 학습된 무력감 이론이 있다.

Beck(1976)은 임상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우울한 사람은 인지적 왜곡 때문에 자기 자신, 자신의 현재 상황,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부정적 사건과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즉각적인 결과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원인에 대한 올바른 귀인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엄격하여 부정적인 자기 평가, 자기 비난을 한다. 우울증 사고의 특징은 충분한 근거 없이 결론을 내리는 인위적 추론(Arbitrary inference), 많은 요인들 중 단지 한 요인만을 선택하여 결론을 내리는 선택적 요약>Selective abstraction), 하나의 단순한 일을 토대로 전반적 결론을 유도해내는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 자신의 일을 지나치게 확대(Magnification) 및 극소화(Minimization)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있다. Beck(1976)의 기본 입장은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사고력이 형편없다거나 비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세계 및 미래에 대해 비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한편, Seligman(1974)은 통제할 수 없는 충격을 동물에게 주었을 때, 동물은 무력감을 느끼고,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도 도피 반응을 학습하지 못한다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이 무력감을 학습함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학습된 무력감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유기체가 통제 불능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반응과 결과간의 비유관성을 갖게 되고 그것은 반응을 해도 강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그 사건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는 첫째, 자발적으로 반응하려는 동기를 저하시킨다. 둘째, 반응의 결과로 강화를 얻을 수 있는 학습을 저해한다. 셋째, 강화에 대한 통제 불가능을 학습한 결과는 통제 가능함을 학습한 결과보다 정서적 안정을 깨뜨리고 우울을 유발한다(Seligman, 1974).

Seligman은 학습된 무력감 발달의 주원인은 자신의 반응이 장래에 일어날 결과를 통제할 수 없으리라는 기대, 즉 반응과 결과에 비유관적인 기대나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인간에 있어서도 자신의 행동 결과를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면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며, 이에 따라 우

을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Abramson(1989)은 수정된 학습된 무력감 모델과 절망감 이론을 제한하면서 절망감이 우울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한편, Coyne(1976)은 실험실 연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울에 있어서의 대인관계의 측면과 특징들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울교사들의 대인관계 측면을 강조하는 Coyne의 이론에 의하면 우울증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한 지지를 받을 때조차도 그 사실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확신감과 안도감을 도출해 내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요구적인 행동양식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된다. 우울증적인 사람은 미세하고 작은 단서들을 점점 더 많이 선택적으로 감지하게 되어 결국 타인들에게 지지감, 확신감,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타인들을 회피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임정숙, 2000, 재인용).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논란은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연구자나 임상가가 일반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독립된 하나의 장애로서 아동기 우울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Clarzio(1989)는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연구자와 임상가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배주미, 2000, 재인용).

첫 번째 견해인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아동들이 과연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Rie, 1966). Freud(1917)는 8~9세보다 더 어린 아동들은 우울증의 발달에 필수적인 내면화된 초자아를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울증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Bibring(1965)은 자기(self)와 자아(ego)간의 갈등에 의해 우울증이 유발된

다고 함으로써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6, 7세로 낮추었으며, Spitz(1946)도 매우 어린 아동들도 애착대상과의 지속적인 분리 상태에 직면하였을 때 우울 증상을 나타낸다는 관찰에 근거하여, 어린 아동들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아동기에 나타난 우울증은 성인기 우울증과는 그 증상이 다르다는 것으로 신체증상, 짜증, 무단결석, 등교 거부, 학습 부진, 과잉 활동, 공격적 행동 등의 우울등가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다(Toolan, 1962; Glaser, 1967; Malmquist, 1977). 이러한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은 ‘가려진 증상’(masking symptoms)들을 연구하고 그 목록을 만들었다(Arajarvi, & Huttman, 1972). 그러나 이러한 관점으로는 과잉행동 장애 등의 다른 장애를 지닌 아동과 ‘가려진 우울증’(masked depression)을 지닌 아동을 쉽게 구별할 수 없으며, 이는 중복장애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소아정신과 내원 아동이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임상보고가 나타나고(Cantwell, 1983), 아동도 성인과 유사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Calson & Kashani, 1988; Puig-Antich, Marx, Greenhill & Chambers, 1978), 아동과 성인 모두 동일한 진단준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세 번째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DSM-II (APA, 1980)에서는 아동기 우울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DSM-III (APA, 1984)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성인 우울증의 진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또한 그 후 DSM-III-R(APA, 1987)과 DSM-IV(APA, 1994)에서도 주요 우울증 진단 기준에 아동과 청소년들은 우울한 기분 대신 짜증을 보일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아동기 우울증과 성인기 우울증을 동일하게 보고자 하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우울증의 임상적인 특징이 성인기 우울증과

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 발병한 주요 우울증의 경우 전반적인 임상특징은 DSM-IV(APA, 1994)에 제시된 성인기 주요 우울증의 특징과 유사하지만, 멜랑콜리아, 정신증, 자살시도가 많이 동반되는 성인기 우울증과는 달리(Roberts, & Lewinshon, & Seely, 1995; Rian, & Puig-Antich, & Ambrosini, 1987) 어린 아동들에게는 분리불안, 공포증, 신체적인 불편감, 행동적인 문제들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Carlson & Kashani, 1988; Kovin, Barrett & Bhate, 1991; Mitchell, McCauley, Burle & Mass, 1988; Rian, Puig-Antich & Ambrosini, 1987). 또한 정신병적 우울증의 경우 청소년과 성인은 망상을 많이 보이는데 비해 아동은 환청을 더 많이 보이며, 이는 아동이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Rian, Puig-Antich, & Ambrosini, 1987).

기분부전 장애의 경우에도 아동들의 경우에는 사랑받지 못함, 분노, 자기 패배감, 신체적인 불편감, 불안감, 말 안 들음과 같은 성인기와는 다소 다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Kovacs, Krol, & Voti, 1994). 또한 DSM 기준과는 달리 기분부전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경우에도 멜랑콜리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Kovacs et al., 1994). 강봉선 등(1987)의 연구에서도 부모용과 아동용 DISC(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 Costello, Edelbrock, Dulcan, Kalas, & Klaric, 1984)를 사용하여 학령기 아동들의 우울증을 연구하였을 때, 학령기 아동들의 경우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이 '흥미상실'에 의해 가장 높은 판별력을 보인 반면, 성인 우울증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우울 정동'은 오히려 판별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주장한 Kovacs와 Beck(1977)은 아동기 우울증은 성인기 우울증과 핵심적인 증상은 유사하나, 아동만 경험하는 증상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아동기 우울증을 구별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을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 입장인 발달정신병리 모델(Cicchetti & Schneider-Rosen, 1986)에 따르면, 아동과 성인 간에는 인지, 언어, 사회, 정서적 능력의 발달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의 우울 증상이 나타난 것을 기대하는 것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및 신경학적 성숙과 아동기 우울증의 표현양상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특히, 아동기 우울증과 다른 아동기의 정신병리가 내재된 기제는 유사하나 외견상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Clarizio(1989)는 증상과 원인의 개념뿐만 아니라, 정상과 이상간의 연속성 속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 발달단계의 적절한 과업을 고려한 정신병리 분류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Phillips, Draguns와 Barlett(1975)는 발달이 우울증의 표현에 영향을 끼치며, 발달의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아동을 작은 어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충동성

가. 충동성의 개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솔하고 주의력이 부족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충동적’이라고 말한다. 충동적인 사람들은 충동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충동성은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성격 특질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충동성의 개념은 복잡하기 때문에 조작적인 정의가 쉽지 않으며, 충동성의 개념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성격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하나의 성격 특성으로 간주되는가 하면,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의 영역에서는 하나의 행동장애의 증후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인지 심리학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성격특징을 이해함에 있어 동기적 측면보다는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는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째, 충동성의 개념을 성격특성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Harriman(1947)은 충동성을 ‘경솔하고 주의력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Buss와 Plomin(1975)은 ‘주저하는 일이 없이 일을 빨리빨리 해치우고 기분 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 부문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자신의 행동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Eysenck와 Eysenck(1977)는 충동성을 외·내향적 성격 차원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하며, 충동성이란 긍정적인 외향성 성격의 특질이면서도 정신병적 경향성과 같은 성격 차원의 한 측면이라고 하였다. 또한 충동성의 개념도 협의의 충동성과 광의의 충동성으로 구분하여, 협의의 충동성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광의의 충동성은 위험 감수, 무계획, 생동감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런 정의를 기반으로 Eysenck(1984) 등은 생각과 인내심 없이 행동하는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Eysenck Impulsivity Scale’을 만들었다.

Gray(1987)는 위험이나 불이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 차원으로 충동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Barratt(1983)은 충동성은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 생각 없이 말하고,

예견능력이 부족한 성격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Barratt(1972)은 충동적인 사람은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하며 대인관계 측면에서 충동성을 논의하였다.

둘째, 최근 들어 인지심리학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성격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동기적 측면보다는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충동적인 사람의 행동 특징 중에서 특히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충동성을 인지 및 운동기능의 측면으로 접근한 학자들은 충동적인 사람의 특징을 운동능력을 자제할 수 없고(Maccoby, Dowley, Hagen, & Degerman, 1965),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Kagan, Roseman, Day, Albert, & Phillips, 1964), 미로학습의 장애자(Porteus, 1959)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충동성자의 인지적 특징을 밝힌 Barratt과 Patton(1983) 등의 연구에 의하면, 충동성 수준이 높은 피험자는 인지적 템포가 빠르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려우며, 지각-운동과제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그리고 Barratt과 Patton(1983)은 충동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빠른 인지속도가 행위계획에 대한 사전 프로그래밍 혹은 반응세트의 확립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Kagan(1966)은 충동성의 정보처리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충동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 반응속도는 빠르지만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였다. Dickman과 Meyer(1988)는 이런 주장을 발전시켜 충동성 수준이 높은 피험자는 자신의 인지전략과 일치하는 부정확하지만 빠른 반응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수행을 잘하고, 충동성 수준이 낮은 피험자는 느리지만 정확한 반응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수행을 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충동성 수준이 중간인 피험자는 빠르게 반응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반응하려는 지배적인 인지전략이 없기 때문에 요구되는 조건에 맞게 자신의 인지전략을 잘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이상심리학이나 정신 병리학의 영역에서는 충동성을 사고 및 행동 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리고 주의결핍장애로 간주하고 아동의 과잉행동, 학습 장애나 난독증, 그리고 정신병질과도 상관이 있다고 한다(Barratt, 1985; 1990; Barratt & Patton, 1983). Paulsen과 Johnson(1980) 또한 충동성을 정신병적 경향성인 행동장애 증후인 임상적 증후군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충동성을 과잉활동증후군, 학습능력부족, 운동기능항진과 같은 이상행동으로 접근하고 있다.

Buss(1966)는 충동성이 반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질이라고 하였고, Cleckley(1976)는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비행을 반복하게 해 주는 성격요소라고 보았다. 특히 탈억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취약한 환경에 처했을 때 반사회적인 행동을 표출하게 되는데 충동적인 성격은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지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주의력 결핍의 한 요소로서 아동기의 충동성은 이후의 부적응 행동 및 비행에 관련되고(Farrington, Loeber & Van Kammen, 1990; Satterfield, 1987), 충동 통제의 결함은 학업성취를 방해하여 인습적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처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장래의 범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Moffit, 1993). 요약하면 충동성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주의 집중력이 낮고, 만족을 연기할만한 능력, 침착성, 자제력이 결여되며, 계획에 의한 활동보다는 즉각적인 선택을 하는 판단이나 행동이 기분에 좌우되는 것과 관계있는 성격 특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충동성의 개념에서, 주의집중결핍은 인지 충동성으로, 선택과 조절·통제의 어려움은 운동 충동성으로, 계획 능력의 결핍은 무계획 충동성이라는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판) 이들 각

각의 하위 유형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 충동성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든지 쉽게 몰두할 수 없으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하는 일이 없다.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며,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한 가지 일이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 추구하지 못하며,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크게 방해 받는다.

둘째, 운동 충동성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다. 한군데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이 들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충분한 사전계획이나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고,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물건을 사며, 또한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무계획 충동성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일을 착수하기 전이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다.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일도 없으며,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착수하며, 그 일에 착수하기 전에 안정성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으로 구분되는 충동성에 대해 행동주의와 정신분석학이 보는 발생 원인은 서로 다른데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주의자들은 충동성이 만족을 연기할만한 능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Anislie, 1975), 잘못된 학습경험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변상수 1996 재인용).

둘째,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충동을 내부에서 부단히 흘러나오는 힘 또는 에너지를 보고 있다. 즉 Freud 이론의 기초개념인 에로스가 생명의 원리로서 성충동 뿐만 아니라 융합·창조·가족의 응집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타나토스는 죽음이 원리로 공격충동·적개심·파괴·적의를 포함하

는 것이다. 인간은 원초에 형체 없는 맹목적 성 및 공격충동으로 시작하여 구조를 갖춘 유목적적 유기체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다(변상수 1996 재인용).

따라서 충동성은 주의집중 결핍과 선택의 조절·통제의 어려움, 계획능력 결핍으로, 인지 충동성·운동 충동성·무계획 충동성의 3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충동성의 원인으로는 자기통제능력이 결핍되거나 부적절한 학습경험의 결과로 혹은 선천적인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아동기의 충동성

보통 충동성은 공격성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둘은 다른 개념이다. 충동성이 공격성 및 과활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충동적인 아동이 반드시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Hynan과 Grush(1986)의 연구에 따르면 충동적인 아동이 타인에 의해 자극을 받거나 정서적으로 부적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공격 행동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비충동적인 아동에 비해 공격 행동을 더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충동적인 아동이 이러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충동성은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부적응적 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정태연, 1992). 정상 아동의 집단에서 충동적인 아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상 아동에 비해 인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력이 열등한 것은 아니며, 때때로 이들의 인지적 수행 성적이 낮은 이유는 실제 상황에서 더 각성하는 정서적 특성이나 빠른 특성이나 빠른 반응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정태연, 1992).

그러나 충동성은 활동을 제지하는 능력의 부족, 직접적인 만족의 추구, 지

적 수행에서의 열등함 등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Block & Harrington, 1974), 충동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 성적이 부진하고 학습 장애를 보일 수도 있으며 탈선적이고 활동지향적인 행동을 통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Messer, 1976). 또한 교사와 동료 학생들에 의해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평정된 아동은 충동적인 의사결정이나 짧은 주의 기간, 주의 산만, 부주의, 부산함, 지속적인 과제 수행력이 결핍된 것으로 밝혀졌다(Kendall, Peliegrini & Urbain, 1981). 이런 반응 특성은 실제 학교생활 장면에서 충동성의 수준에 따라 보상이나 벌의 신호 단서에 대한 반응 자제력, 도덕규범 수준, 분노 표출의 특징을 결정한다(Blackburn, 1980).

충동성과 학업 성취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사에 대한 태도, 학교생활 규칙 준수, 교우 관계 등의 학교생활 적응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특히 충동성이 높을수록 교우 관계가 더 부정적이라는 연구 보고(최장숙, 1993)도 있다. 강명숙(1991)은 충동적인 아동은 매일의 환경적 요구에 대해 장애를 갖게 되고,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으며, 또 동료와 어른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의력 결핍의 한 요소로서 아동기의 충동성은 이후의 부적응 행동 및 비행에 관련되고(Farrington, Loeber & Van Kammen, 1990; Satterfield, 1987), 충동 통제의 결함은 학업성취를 방해하여 인습적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처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장래의 범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Moffit, 1993). 즉, 충동적인 아동이 지금은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반응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낮은 학업 성적을 받을 경우 이것은 그들에게 좌절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누적되어 공격적인 아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다양한 인지양식 중에 인지적 속도차원으로 알려진 충동성-사려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gan(1966)은 사려적 아동은 어려운 문제 장면에서 몇 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의 적합성을 평가한 다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반응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충동적인 아동은 그에게 떠오르는 가설을 평가해 보지 않고 그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충동성-사려성을 인지양식으로 보는 주장도 있는 반면 유전적 요인에 의한다는 주장도 있다. Henker와 Whalen(1980)에 의하면 어머니가 임신 중 만취한 경험이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짜증내고 거부하는 양육태도를 취했을 때 그 자녀가 충동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Coners(1980)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유아의 충동성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유아가 처한 사회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환경(양육자의 양육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Hess와 Shipman(1965)은 문화적으로 불리한 아동이 문화적으로 유리한 아동보다 행동면에서 더 충동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유미(1990)가 사려성-충동성에 대한 관련 변인이 지능, 문화, 성별, 사회계층, 체격,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인지양식 및 교사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주연(1996)은 부정적인 양육형태라고 볼 수 있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에서 충동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충동적인 아동들은 자주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며, 수업 방해 행동을 많이 하고, 자기 통제, 정서적 문제, 교사 및 교우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행동적 충동성으로 인하여 학교적응에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충동성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되는 한 부분인 언어통제 유형이 자녀의 충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우울 및 충동성과의 관계

가.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우울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왔다.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우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자녀의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우울한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관찰 연구를 한 Amant와 Bullter(1984)는 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지배적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통제가 강한 것을 관찰하였다. Poznanski와 Zrull(1970)은 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고 벌을 주고 자녀와 분리되어 있고, 자녀의 흠을 잡으며 자녀를 무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노성향(1994)은 부모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우울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며, 임점숙(2000)도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하느냐, 역기능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우울성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송연경(2003)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근욱(2005)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고등학생의 우울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미선(2007)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은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며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우울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고영희(200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고등학생의 우울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인 고등학생이 문제형인 고등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경민(1995)은 아동의 우울성향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우울성향이 높은 아동 집단의 어머니는 언어통제 유형의 점수가 낮아 보다 더 명령적인 통제를 많이 사용하고, 우울성향이 낮은 아동 집단의 어머니들이 언어통제 유형 점수가 높아 보다 더 인성 지향적 통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언어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충동성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충동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성 발달 및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박경숙(1973)은 어린이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의 형태나 구성이 아니라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의 교육 방법 및 태도라고 하였다. 윤희상(1974)은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성격특성과 관계가 깊고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모든 성격특성에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박은미(1993)는 익애형 어머니로 지각한 자녀일수록 사려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는 반면, 적극적 거부형으로 지각한 자녀일수록 안정성은 낮아지며, 엄격한 어머니로 지각한 자녀의 사회성 역시 낮다고 하였다.

Symonds(1939)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를 지배적, 거부적, 복종적, 과보호적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부모의 태도에 따라 자녀의 행동적 반응은 명백하다고 보았다. 즉, 지배적 태도와 과보호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은 의존적이 되며, 복종적과 과보호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은 자기중심적이고, 거부적 태도와 복종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은 충동적이고 지배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은 반항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Coners(1980)는 유아의 충동성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유아가 처한 사회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환경(양육자의 양육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Hess와 Shipman(1965)은 정상적인 아동과 주의가 산만한 아동을 비교 연구한 결과, 주의가 산만한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통제와 간섭, 지시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Werky, Weiss & Donglas(1964)의 연구에 따르면 과잉 행동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침착하지 못하고 산만해하며 부주의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Cambell(1973)은 과행동적 아동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의 결핍은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의 행동 즉, 아동 자신이 스스로 행동을 내부적으로 통

제, 조절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감시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의 행동 때문에 길러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동적인 아이는 인지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배울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통제적인 부모를 가진 반면, 사려적인 아동은 자율적인 부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충동적인 아동의 엄마들은 성취에 대해서 더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더 직접적인 도움과 더 많은 제시가 주어진다고 한다. 반면 사려적인 아동의 엄마는 다른 충동적인 아동의 엄마보다 더 고무적이고 덜 지배적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Cambell(1973)은 과행동적, 충동적, 사려적 세 집단의 아동들의 엄마를 비교하였다.

사려적인 아동의 어머니는 충동적인 아동의 어머니보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인 물리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과행동적인 아동의 어머니는 다른 두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격려하는 말을 자주 주었으며, 충동을 억제하도록 더 많은 지시를 주었다. 이 결과는 Cambell(1973)이 세운 가정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교사나 실험자 또는 부모가 사려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아동들의 사려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Modeling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Yando, 1970).

부모의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에서 정재희(2000)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애정-적대가 충동성과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은 애정-적대 차원에서 애정적이라고 지각한 학생일수록 운동 충동이 낮아졌고, 중학생은 어머니가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이라고 지각한 학생일수록 무계획 충동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태호(2011)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충동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충동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충동성을 감소시켜 이를 매개로 한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은경(2001)은 아버지가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여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피하는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충동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가혹한 체벌을 가하거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학대, 대화 거부 등의 냉담한 태도,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여 강요하거나 간섭하고 일일이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일수록 행동적 충동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복종적, 간섭적, 지배적,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 하므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의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 및 경제 생활 수준이 편중되지 않도록 학교 급지별로 표집 학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총 16개 학급의 아동 402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 중 어머니를 주양육자라고 응답한 312명을 추출하였고, 이들 중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명확히 분류되는 13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분석대상의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대상 현황

구분		N	%
소속학교 급지	가	36	26.7
	나	37	27.4
	다	38	28.1
	라	24	17.8
소속학교	a	16	11.9
	b	20	14.8
	c	18	13.3
	d	19	14.1
	e	17	12.6
	f	21	15.6
	g	24	17.8
학년	5학년	68	50.4
	6학년	67	49.6
성별	남학생	73	54.1
	여학생	62	45.9

언어통제 유형	명령형	76	56.3
	지위 지향형	18	13.3
	인성 지향형	41	30.4
전체		135	1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에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 언어통제 유형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 중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검사도구는 각 문항마다 점수를 매겼던 도혜숙(1997)의 질문지를 아동의 나이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배정미(2006)의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인성 지향적 통제에 대하여 아동 지향적 통제와 부모, 타인 지향적 통제로 나누어 각 문항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항목은 Bernstein(1971)과 Gumperz(1973)의 이론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아동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언어통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에 대하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문항의 문항내적합치도 계수(Conbach's α)는 .67이었다.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분류는 아동이 질문지에 선택한 각 유형별 빈도를

합산하고 보기에 제시된 유형 이외의 기타 란에 기술된 문항이 있을 경우 각 문항마다 내용을 분석하여 세 가지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에 빈도를 더하였다. 이 빈도들은 하나의 빈도에 대해서 1점씩 부여하였다. 세 가지 언어통제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유형을 어머니의 대표적인 언어통제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통제 유형 규정시 각 통제유형의 빈도가 비슷하거나 어느 한 유형의 빈도가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검사에 제시된 통제유형은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언어통제 유형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적 준거
명령적	행동 통제 시 아동에게 부여하는 역할 재량권이 거의 없으며, 부모의 명령, 언어적 벌, 신체적 벌, 자극의 제거, 간접적 벌 등이 포함된다.
지위 지향적	행동 통제 시 아동에게 부여되는 역할 재량권이 형식적 지위에 제한을 받는 통제로써 보편적 규칙, 지위적 규칙, 가족적 규칙 등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성 지향적	행동 통제 시 아동의 역할 재량권이 동기, 의도, 상황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의 특징, 의도, 동기의 관점을 고려한 아동 지향적, 부모 · 타인 지향적 언어 통제 등이 포함된다.

나. 아동우울검사

아동우울검사는 기존의 우울검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동우울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특징이나 증상들을 망라하면서 보다 심리 측정적이며 타당한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배유진

(2009)의 아동우울척도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시점으로부터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의 기분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자기보고식 우울 평정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④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고, 총 우울점수는 25~100점 사이에 분포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척도는 인지와 정서 12문항, 의욕 및 신체활력 8문항, 교우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에 대한 문항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인지와 정서는 아동 우울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증상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의욕 및 신체활력은 아동 우울에서 나타나는 의욕 및 신체 활력 저하와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우 관계는 아동 우울로 인해 나타나는 교우 관계 문제와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우울의 하위요인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문항수)	Cronbach's α
인지와 정서	1, 2, 5, 8, 11, 14, 15, 16, 18, 19, 22, 23 (12)	.93
의욕 및 신체활력	4, 6, 7, 13, 20, 21, 24, 25 (8)	.84
교우관계	3, 9, 10, 12, 17 (5)	.82
	전체 (25)	.95

다. 충동성 검사

충동성은 Eysenck(1984)의 검사를 이현수(1985)가 번안하고, 이주식(2003)이 수정, 보완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주식(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총 18개의 설문 문항으로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을 측정한다. 인지 충동성은 경솔하게 결심하는 경향이 고, 운동 충동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계획 충동성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Barratt, 1990). ①'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항상 그렇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다는 것이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 소요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자가 근무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4주에 예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시 문항이 타당한가, 문항수는 적당한가, 문항에 응답하는 시간은 적당한가 등을 확인 한 후, 실시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예비조사 설문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11월 3주에서 12월 1주에 걸쳐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자료처리 및 분석과정으로 이루어졌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결과분석을 위해 통계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소속 학교의 급지별, 소속 학교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언어통제 유형 집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고, 언어통제 유형을 구분할 때 한 가지 유형의 응답이 10개의 문항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경우에 특정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연구문제 1과 2의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언어통제 유형 중 어떤 유형에서 우울감 및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ur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연구의 변인별 측정치의 전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학교의 급지, 학교, 학년, 성별에 따른 집단 분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분석대상의 언어통제 유형 집단 분포

소속 학교의 급지별, 소속 학교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소속학교의 급지 및 소속학교, 학년, 성별에 따른 언어통제 유형의 차이

구분	언어통제 유형(%)			계	χ^2 (df)
	명령형	지위형	인성형		
급지	가	24(17.8)	4(3.0)	8(5.9)	5.53(6)
	나	18(13.3)	8(5.9)	11(8.1)	
	다	22(16.3)	3(2.2)	13(9.6)	
	라	12(8.9)	3(2.2)	9(6.7)	
학교	a	10(7.4)	2(1.5)	4(3.0)	5.91(12)
	b	14(10.4)	2(1.5)	4(3.0)	
	c	9(6.7)	4(3.0)	5(3.7)	
	d	9(6.7)	4(3.0)	6(4.4)	
	e	10(7.4)	1(0.7)	6(4.4)	
	f	12(8.9)	2(1.5)	7(5.2)	
	g	12(8.9)	3(2.2)	9(6.7)	

학년	5학년	37(27.4)	13(9.6)	18(13.3)	68(50.4)	4.21(2)
	6학년	39(28.9)	5(3.7)	23(17.0)	67(49.6)	
성별	남학생	40(29.6)	13(9.6)	20(14.8)	73(54.1)	2.91(2)
	여학생	36(26.7)	5(3.7)	21(15.6)	62(45.9)	
전체		76(56.3)	18(13.3)	41(30.4)	135(100)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속 학교의 급지별, 소속 학교별, 학년별,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5.53, p> .05$). 따라서 소속 학교의 급지별, 소속 학교별, 학년별,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분석대상의 우울감 및 충동성의 측정치 분포

분석대상의 소속 학교 급지, 소속 학교, 학년, 성별에 따른 우울감 및 충동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 우울감 및 충동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우울감				충동성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전체		
급지	가(36)	1.49(.54)	1.71(.53)	1.39(.55)	1.54(.50)	2.05(.77)
	나(37)	1.51(.70)	1.71(.74)	1.28(.41)	1.53(.61)	1.87(.92)
	다(38)	1.54(.69)	1.78(.67)	1.35(.51)	1.58(.58)	1.81(.74)
	라(24)	1.26(.29)	1.69(.45)	1.32(.38)	1.41(.31)	1.71(.60)
학교	a(16)	1.66(.63)	1.82(.51)	1.56(.57)	1.69(.53)	2.20(.83)
	b(20)	1.35(.43)	1.63(.54)	1.25(.51)	1.42(.46)	1.92(.72)
	c(18)	1.35(.44)	1.44(.46)	1.24(.37)	1.36(.40)	1.58(.69)
	d(19)	1.66(.87)	1.95(.87)	1.32(.45)	1.69(.73)	2.15(1.05)
	e(17)	1.56(.73)	1.71(.48)	1.44(.66)	1.58(.60)	1.79(.67)
	f(21)	1.53(.68)	1.85(.80)	1.28(.34)	1.58(.57)	1.83(.80)

	g(24)	1.26(.29)	1.69(.45)	1.32(.38)	1.41(.31)	1.71(.60)
학년	5학년(68)	1.51(.62)	1.80(.65)	1.41(.51)	1.58(.54)	2.01(.85)
	6학년(67)	1.42(.59)	1.65(.58)	1.26(.42)	1.46(.51)	1.74(.69)
성별	남학생(73)	1.49(.66)	1.73(.61)	1.38(.52)	1.55(.55)	1.90(.75)
	여학생(62)	1.44(.54)	1.72(.63)	1.28(.40)	1.50(.50)	1.84(.82)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우울감은 급지에 따라서는 다 급지(M=1.58), 가 급지(M=1.54), 나 급지(M=1.53), 라 급지(M=1.41) 순으로 나타났고,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M=1.58)이 6학년(M=1.46)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M=1.55)이 여학생(M=1.5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모두 그다지 높은 수치는 나타내지 않았다.

충동성은 가 급지(M=2.05), 나 급지(M=1.87), 다 급지(M=1.81), 라 급지(M=1.71) 순으로 나타났고,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M=2.01)이 6학년(M=1.74)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M=1.90)이 여학생(M=1.84)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소속 학교의 급지 및 소속 학교, 학년, 성별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소속 학교의 급지 및 소속학교, 학년, 성별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구분		SS	df	MS	F
인지와 정서	집단간	1.37	3	.46	1.26
	집단내	47.63	131	.36	
	전체	49	134		
급지	의욕 및 신체활력	.18	3	.06	.16
	집단내	50.90	131	.39	
	전체	51.08	134		
교우관계	집단간	.23	3	.08	.33
	집단내	29.52	131	.23	
	전체	29.75	134		
전체	집단간	.46	3	.15	.55

	집단내	36.67	131	.28		
	전체	37.14	134			
학 교	인지와 정서	집단간	3.11	6	.52	1.44
		집단내	45.89	128	.36	
		전체	49	134		
	의욕 및 신체활력	집단간	3.10	6	.52	1.38
		집단내	47.98	128	.38	
		전체	51.08	134		
	교우관계	집단간	1.38	6	.23	1.04
		집단내	28.37	128	.22	
		전체	29.75	134		
	전체	집단간	2.11	6	.35	1.28
		집단내	35.03	128	.27	
전체		37.14	134			
학 년	인지와 정서	집단간	.28	1	.28	.76
		집단내	48.72	133	.37	
		전체	49	134		
	의욕 및 신체활력	집단간	.71	1	.71	1.87
		집단내	50.37	133	.38	
		전체	51.08	134		
	교우관계	집단간	.75	1	.75	3.44
		집단내	29	133	.22	
		전체	29.75	134		
	전체	집단간	.48	1	.48	1.75
		집단내	36.65	133	.28	
전체		37.13	134			
성 별	인지와 정서	집단간	.06	1	.06	.17
		집단내	48.93	133	.37	
		전체	48.99	134		
	의욕 및 신체활력	집단간	.01	1	.01	.01
		집단내	51.07	133	.38	
		전체	51.08	134		
	교우관계	집단간	.38	1	.38	1.71
		집단내	29.37	133	.22	
		전체	29.75	134		
	전체	집단간	.07	1	.07	.25
		집단내	37.07	133	.28	
전체		37.14	134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속 학교의 급지, 소속 학교, 학년, 성별에 따른 우울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소속 학교의 급지 및 소속 학교, 학년, 성별에 따라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소속학교의 급지 및 소속학교, 학년, 성별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구분		SS	df	MS	F
급지	집단간	1.87	3	.62	1.02
	집단내	78.13	128	.61	
	전체	79.99	131		
학교	집단간	5.63	6	.94	1.58
	집단내	74.36	125	.60	
	전체	79.99	131		
학년	집단간	2.49	1	2.49	4.17*
	집단내	77.51	130	.60	
	전체	79.99	131		
성별	집단간	.14	1	.14	.23
	집단내	79.85	130	.61	
	전체	79.99	131		

*p<.05

<표 8>에서 보듯이, 소속 학교의 급지, 소속 학교, 성별에 따른 충동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5학년(M=2.01)이 6학년(M=1.74)에 비해 충동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년에 따른 충동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F=4.168, p<.05).

예비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학교 급지나 소속 학교, 성별, 학년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우울감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충동성의 경우에도 학년을 제외하고 기타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교환경이나 성별, 학년과 같은 변인

은본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의 차이

연구문제 1로 제시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이 우울감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기술통계치(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우울감	언어통제 유형	M	SD
인지와 정서	명령형(76)	1.60	.71
	지위형(18)	1.23	.40
	인성형(41)	1.33	.37
의욕 및 신체활력	명령형(76)	1.88	.68
	지위형(18)	1.42	.45
	인성형(41)	1.58	.47
교우관계	명령형(76)	1.41	.55
	지위형(18)	1.17	.31
	인성형(41)	1.27	.32
전체	명령형(76)	1.65	.61
	지위형(18)	1.28	.36
	인성형(41)	1.40	.34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울감의 하위 변인별 중 인지와 정서의 평균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M=1.60)이 가장 높았고, 인성 지향형(M=1.33), 지위 지향형(M=1.23) 순으로 나타났다. 의욕 및 신체활력에서의 우울감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M=1.88)이 가장 높았고, 인성 지향형

(M=1.58), 지위 지향형(M=1.42) 순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서의 우울감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M=1.65)이 가장 높았고, 인성 지향형(M=1.27), 지위 지향형(M=1.17)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전체 평균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M=1.65)이 가장 높았고, 인성 지향형(M=1.40), 지위 지향형(M=1.2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아동의 우울감이 가장 높고,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아동의 우울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의 일원분산분석

구분		SS	df	MS	F	Turkey HDS
인지와 정서	집단간	3.18	2	1.59	4.58*	①*②
	집단내	45.82	132	.35		①*③
	전체	49	134			
의욕 및 신체활력	집단간	4.18	2	2.09	5.88**	①*②
	집단내	46.90	132	.36		①*③
	전체	51.08	134			
교우관계	집단간	1.13	2	.56	2.60	
	집단내	28.62	132	.22		
	전체	29.75	134			
전체	집단간	2.96	2	1.48	5.17**	①*②
	집단내	34.18	132	.26		①*③
	전체	37.14	134			

*p<.05 **p<.01

① 명령형 ② 지위 지향형 ③ 인성 지향형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울감은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713, p<.01). 우울감의 하위 요인별로 보면 인지와

정서에서의 우울감은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F=4.577, p<.05$), 의욕 및 신체활력에서의 우울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5.882, p<.01$). 교우관계에서의 우울감에서는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597, p>.05$).

언어통제 유형 중 어떤 유형에서 우울감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ur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에서의 우울감은 명령형과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간, 명령형과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울감 전체로 봤을 때도 명령형과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간, 명령형과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지위 지향형이나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보다 아동의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충동성의 차이

연구문제 2로 제시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충동성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충동성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기술통계치(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충동성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언어통제 유형	M	SD
충동성	명령형(76)	2.04	.87
	지위형(18)	1.62	.53
	인성형(41)	1.69	.64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충동성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M=2.04)이 가장 높았고, 인성 지향형(M=1.69), 지위 지향형(M=1.6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아동의 충동성이 가장 높고,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아동의 충동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충동성의 일원분산분석

구분	SS	df	MS	F	Turkey HDS	
충동성	집단간	4.54	2	2.27	3.88*	
	집단내	75.45	129	.59		
	전체	79.99	131			

*p<.05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충동성은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882, p<.05). 사후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의 짝이 나타나지 않아, 세 유형들 간에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3으로 제시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는데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별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 언어통제 유형별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

구분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우울감	
충동성	명령형(76)	.64**	.76**	.57**	.73**
	지위형(18)	.62**	.67**	.30	.65**
	인성형(41)	.37*	.78**	.38*	.62**
	전체	.61**	.77**	.54**	.72**

*p<.05 **p<.01

<표 13>에서 우울감의 하위 변인과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에서 인지와 정서와 충동성은 $r=.635(p<.01)$, 의욕 및 신체활력과 충동성은 $r=.755(p<.01)$, 교우관계와 충동성은 $r=.571(p<.01)$, 우울감 전체와 충동성은 $r=.733(p<.01)$ 으로 우울감과 충동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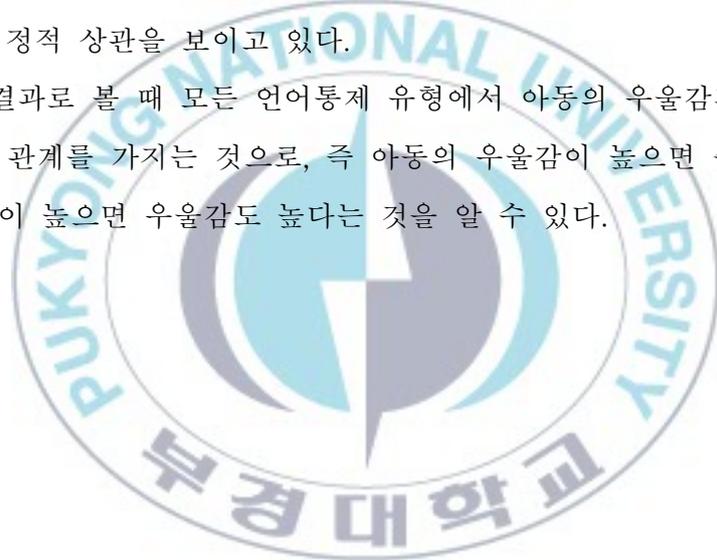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에서 인지와 정서와 충동성은 $r=.615(p<.01)$, 의욕 및 신체활력과 충동성은 $r=.667(p<.01)$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교우관계와 충동성은 $r=.304(p>.05)$ 로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울감 전체와 충동성은 $r=.647(p<.01)$ 로 우울감과 충동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에서 인지와 정서와 충동성은 $r=.367(p<.05)$, 의욕 및 신체활력과 충동성은 $r=.775(p<.01)$, 교우관계와 충동성은 $r=.383(p<.05)$, 우울감 전체와 충동성은 $r=.622(p<.01)$ 으로 우울감과 충동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언어통제 유형 전체로 보면 인지와 정서와 충동성은 $r=.610(p<.01)$, 의욕 및 신체활력과 충동성은 $r=.767(p<.01)$, 교우관계와 충동성은 $r=.540(p<.01)$, 우울감 전체와 충동성은 $r=.723(p<.01)$ 으로 우울감과 충동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모든 언어통제 유형에서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과 상호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즉 아동의 우울감이 높으면 충동성도 높고, 충동성이 높으면 우울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5, 6학년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402명 중 어머니를 주양육자로 응답한 312명을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는 312명 중 언어통제 유형으로 분류 가능한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는데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우울감은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감의 하위 요인별로 보면 인지와 정서에서의 우울감은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의욕 및 신체활력에서의 우울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교우관계에서의 우울감은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 지위 지향형이나 인성 지향형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할 때보다 아동의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는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보다는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또는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여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성향이 높은 아동 집단의 아동 어머니가 명령적인 언어통제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우울 성향이 낮은 아동 집단의 어머니가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박경민(199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아동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인 것이라고 지각할수록 더 우울해한다는 임점숙(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송연경(2003),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고등학생의 우울이 낮게 나타난다는 이근욱(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우울은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우울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김미선(2007),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인 고등학생이 문제형인 고등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낮다는 고영희(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은 주로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아동에게 포기 또는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벌을 내리는 등의 통제가 이에 속한다. 명령적 언어통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울한 아동의 부모가 지배적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통제가 강한 것을 관찰하였다는 Amant와 Bullter(1984)의 연구, 우울한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고 벌을 주고 자녀와 분리되어 있고, 자녀의 흠을 잡으며 자녀를 무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Poznanski와 Zrull(197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충동성은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의 짝이 나타나지 않아, 세 유형들 간에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양육태도에 포함된다고 볼 때 초등학생에게 어머니의 애정-적대 양육태도가 충동성과 상관이 높다는 정재희(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을 이루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충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태호(201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 및 체재성이 아동의 충동성을 유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음을 예측한 정인선(2006) 및 정재희(200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아버지가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여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하는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충동성이 낮게 나타나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가혹한 체벌, 실수를 용납 못함, 학대, 대화 거부 등의 냉담한 태도,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여 강요하거나 간섭하고 일일이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일수록 행동적 충동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이은경(200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언어통제 유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거부적 태도와 복종적 태도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성격이 충동적이라고 주장한 Symonds(193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충동적인 아이는 인지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배울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통제적인 부모를 가진 반면, 사려적인 아동은 자율적인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Cambell(1973)의 주장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주의가 산만한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통제와 간섭, 지시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Hess와

Shipman(1965)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맥을 이룬다고 하겠다.

셋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우울감과 충동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에서는 우울감의 하위 변인인 인지과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모두 충동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지위 지향형 언어통제 유형에서 우울감의 하위 변인 중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은 충동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교우관계는 충동성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인성 지향형 언어통제 유형에서는 우울감의 하위 변인인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모두 충동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모든 언어통제 유형에서 우울감이 높은 아동은 충동성도 높고, 충동성이 높으면 우울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김희수, 2011; 류희정, 2010; 오현아, 2006), 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김미경, 2002; 김유정, 2002; 김효선 2002; 송숙자·심희옥, 2003; 이대환, 2004; 이소영, 2000; 이송선, 2000; 진선애, 2006)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수진, 2010)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성과 우울 간에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이병길(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충동성은 우울과 서로 약한 정적상관을 나타낸다는 김희수(2011)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2. 결론 및 제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 및 충동성의 상관관계 및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우울감 및 충동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충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충동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은 전체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상관의 정도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우울감이 높은 아동이 충동성도 높고, 충동성이 높은 아동이 우울감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의 우울감 및 충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가정에서 부모는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보다는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 또는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여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통제 유형이 자녀들의 발달 과정에 있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대화 기법과 의사소통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

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에 대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의 언어 사용이 자녀의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시키고, 다양하고 대중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자녀 간에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울감이 높은 아동이 충동성도 높고, 충동성이 높은 아동이 우울감도 높게 나타나므로 현장에서는 우울감과 충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울감이나 충동성이 높은 아동은 그에 맞는 상담 및 치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지-행동적 집단 상담, 계슈탈트 집단 프로그램, 미술치료 등 검증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현장 내에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동의 우울감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을 줄이기 위해 동기강화인지행동치료나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학교 현장 내에 적용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양육자를 추출하고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구분 하는 과정에서 1수집된 총 402 사례 중 135 사례가 분석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부산 시내 초등학생 5, 6학년을 표집대상으로 하여 타지역의 아동들에게까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및 학교급별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각 언어통제 유형별로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설문 조사를 할 때 기타 응답에서 ‘네가 ~하면 내가 ~ 해 줄게.’ 등의 조건부 대답과 같이 비통제적 언어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응답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기타 응답의 비통제적 언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진다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상황에서 기존에 알려진 언어통제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으로의 분류도 가능할 것이며 그러한 유형은 아동의 우울감과 충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확장된 연구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검사도구는 각 문항마다 점수를 매겼던 도혜숙(1997)의 질문지를 아동의 나이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배정미(2006)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인성 지향적 통제에 대하여 아동 지향적 통제와 부모·타인 지향적 통제로 나누어 각 문항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유형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항마다 총 4가지의 지문이 제시되었으나 결과 분석은 아동 지향적 통제, 부모·타인 지향적 통제 모두를 인성 지향적 통제로 분류함으로써 3가지 언어통제 유형 중 인성 지향적 통제로 분류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이 질문지를 활용할 때에는 문항 수를 좀 더 늘리고 명령적, 지위 지향적, 아동 지향적, 부모·타인 지향적 통제로 나누어 각각의 언어통제 유형이 아동의 우울감 및 충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건강증진사업지원단(2006). 청소년 부교재 및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 개발 연구.
- 고영희(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 불안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리은(1996).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2).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격성, 충동성, 대인불안과 컴퓨터 게임 중독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2007).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우울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연(2008). 인지행동적 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우울과 인지적 오류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철(2007). 컴퓨터 게임의 종류 및 이용 형태에 따른 충동성 및 폭력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01).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효과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2002).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 개발 및 심리사회적 취약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향(199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수(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2002). 인터넷 게임 중독이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수(2011). 우울과 충동성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 자의식을 매개변인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혜숙(1997).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
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희정(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치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합남(2003).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 정도와 불안, 우울, 충동성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강택(2005).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민(1995). 아동의 우울성향과 내외통제성 및 어머니 언어 통제 유형의
관계 : 일 광역시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경숙(1973). 핵가족이 어린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완석(2011).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충동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199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2008).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충동성, 공격성과의 관계. 아
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미(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 18개월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상수(1996).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른 충동성과 공격성과의 관계. 한국교
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1989). 한국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음악의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희준(1988).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원(2002).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
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숙자, 심희옥(2003). 아동의 컴퓨터게임 몰두성향과 심리사회 및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승연경(200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체계 및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영(1998). 한국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모델에 관한 시도적 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윤숙(2001). 남자 고등학생의 우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아(2008).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충동성 및 위축행동.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수성, 홍창의, 이숙자, 이광섭, 정정화 (공역). (2002). **소아기 우울증**. 서울:하나의학사.
- 오현아(2006).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 이숙(2002). **훈련중심 부모교육**. 서울:학지사.
- 윤희상(197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욱(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양상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환(2004).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강박성관의 연관성.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송선(2000).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옥(2006). 초등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 충동성, 심리적 안녕감, 자존감, 불안, 우울 등.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화(1998).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0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충동성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10).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충동성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의 관계 :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1993). 가족체계 및 어머니 자녀 의사소통과 아동우울에 관한 연구 : 아동기 자녀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공격성 및 충동성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2011).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중학생의 정서조절 양식 및 우울/불안과의 관계.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식(2003).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 몰입 및 현실지각수준에 따른 인성 특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1996). 아동학대유형에 따른 또래수용과 인성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호(201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귀인성향, 충동성 및 공격성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규란(2001). 유아에 대한 부와 모의 언어통제 유형 비교.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점숙(2000).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녀의 우울 성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영(2004). 인터넷 게임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성, 충동성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2006). 동기강화인지행동치료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2010). 충동성, 사회적 지지가 폭식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선(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희(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1992). 충동성과 공격성이 좌절 상황에서의 사회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병숙(2003).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철, 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조중현(1984). 고교생의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선애(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 및 대인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장숙(1993). 국민학교 아동의 충동성 성격 특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1993).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이(2009).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ajarvi, T., & Huttman, M. (1972). Encopresis and enuresis as symptoms of depression. In A. L. Ansell (Ed.), *Depressive stat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202-223. Stockholm: Almqvist and Wiksell.
- Barratt, E. S. (1972). Anxiety and impulsiveness: Toward a neuropsychological model. In C. 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1*, New York; Academic.
- Barratt, E. S.,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Zuckerman(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NJ: Earlbaum.
- Barratt, E. S. (1990).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Paper presented at Risk Special Studies Meeting McArthur Foundation Program of Research on Mental and Behavior. Pittsburgh, P. A., September, 27-28.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rnstein, B. A. (1971). *Class, codes and control(vol.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ibring, E. (1965). The mechanism of depression. In P. Greeance (Ed.), *Affective disorders*. pp. 13-48.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uss, A. H. (1966). *Psychopathology*. New York: Wiley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Calson, G. A. & Kashani, J. H. (1988). Phenomenology of Major Depression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Analysis of Three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222-1225.
- Cantwell, D. A. (1983). Depression in Childhood : Clinical picture and diagnostic criteria. In D. P. Cantwell & G. A. Carlson (Eds.), *Affective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An update (2nd. ed.)*. Philadelphia. PA: Lippincott.

- Cicchetti, D. & Schneider-Rosen, K. (1986). An Organizational approach to childhood depression. In M. Rutter, C. Inzard & P. Read (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pp.71-134. New York : Guilford.
- Clarzio, H. F. (1989). *Assesment and treat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randon, CT: Clinical Psychology Pub.
- Coners, C. K. (1980). A teacher rating scale for use in drug studies with children. *Journal of Psychiatry, 126*, 884-888.
- Costello, A. J. & Edelbrock, C. S., Dulcan, M. K., Kalas, R. & Klaric, S. H. (1984). Dvelopment and testing of the NIMH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 in a clinic population: Final report. Rockvill, MD, NIMH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ickman, S., & Meyer, D. E. (1988). Impulsivity and speed-accuracy tradeoffs i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74-290.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85). *Personality individual difference: A nature science approach*. NY: Plenum Press.
- Farrington, L., & Van Kammen(1990). Long-term criminal outcomes of hyperactivity-attention deficit and conduct problems. In L. Robins & Rutter (Eds.),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pp. 62-8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ud, S. (1917). *Mourning and melancholia*. London.
- Ginott, H. G. (1972). *부모와 아이들 사이*, 김순희(역) 서울: 종로서적.
- Glaser,. (1967). Maske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1*, 565-574.
- Gorden, T. (1975).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

American Library.

- Gray, J. A. (1987). Perspectives on anxiety and impulsivity: A commentar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493-509.
- Gumpertz, J. J.(1973). *D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London:Holt, Rinehart & Winston.
- Harriman. P. (1947). *The dictionary of psychology*.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 Hess, R. D., & Shipman, V. C. (1965). Early experience and the socialization of cognition modes in children development, 34, 869-886.
- Kagan, J., Rosman, B., Day, D., Albert, J., & Phillips, W. (1964). Information processing in child. Significance of analytic and reflectance attitudes. *Psychological Monographs, 78*(#578).
- Kagan, J. (1966). Reflection-Impulsivity: The generality and dynamics of conceptual tempo.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1*, 17-24.
- Malmquist, D. P. (1977). Childhood Depression : A Clinical and Behavioral Perspective : In J. G. Schulerbrants & A. Raskin(Eds.), *Depression in Childhood :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 pp. 33-59. New York : Ravan Press.
- Mitchell, J., McCauley, E., Burle, P. M., & Mass, S. J. (1988). Phenomenology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nd Adolescents Psychiatry, 1*, 12-20.
- Moffit, P.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Phillips, L., Draguns, J. & Barlett, D. (1975). Classification of behavior disorders. In N. Hobbs (Eds.), *Issues in the classification of children*, pp. 26-55. San Francisco : Jossey-Bass.
- Puig-Antich, J., Blau, S., Marx, N., Greenhill, L. L. & Chambers, W. (1978). Prepubertal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7, 695-707.
- Rian, N. D., Puig-Antich, J., & Ambrosini, P. (1987). The clinical picture of major depression in children in childhood and adolescents. *Archive of Gneral Psychiatry*, 44, 854-861.
- Rie, H. E. (1966). Depression in Childhood : A survey of some pertinent contribu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5, 653-656.
- Roberts, R. E., Lewinsohn, P. M., & Seely, J. R. (1995). Symptoms of DSM-III-R major depression in adolescence : evidence from an epidemiological study.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1608-1617.
- Satterfield, J. M. (1987). Childhood diagnostic and neuropsychological predictors of teenage arrest rates: An eight-year prospective study. In S. A. Mednick, T. E. Moffitt & S. A. Stack(Eds.), *The Causes of crime : New biological approaches*(pp.146-167).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olan, J. M. (1962).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2, 404-414.

Yando, R. M. (1970). The effect of task complexity reflection-impulsivity. *Cognitive Psychology, 1*, 192-200.



부 록

<부록 1>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검사도구

<부록 2> 아동의 우울감 검사도구

<부록 3> 아동의 충동성 검사도구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시는 언어 유형과 여러분이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은 없으며, 누가 어떤 답을 썼는지 여러분의 부모님도, 선생님도 절대 알 수 없으므로 가장 솔직한 답을 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잘 읽어보고 빠짐없이 답해 주세요.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 11.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전공 전은혜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할 때, 앞의 질문에서 대답한 **여러분을 가장 오랜 시간 돌봐 주시는 분 (아래부터 □로 표시)**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로 어떻게 말씀하실지 **추측하여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 하나**를 골라서 체크(√ 또는 ●)해 주세요. 만약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⑤ 기타에 자세히 적어주세요.

1. 밤늦은 시간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께서 그만 자라고 하신다. 만약 내가 계속 보겠다고 조르면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① 빨리 가서 자라!
 - ② 네가 잘 시간에 TV를 보고 있으니 내가 걱정이 되는구나!
 - ③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바른 학생이지.
 - ④ 늦게까지 TV를 보면 눈도 나빠지고, 내일 학교 가기도 힘들겠다.
 - ⑤ 기타 _____

2. 학교가 끝난 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너무 늦게 집에 들어간다면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①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 ② 집에 연락도 안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쁜 사람이 잡아가면 어떻게 하니?
 - ③ 어디 갈 때는 집에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지.
 - ④ 이렇게 늦게 오면 집에서 걱정하잖니. 다음부터는 얘기하고 가라.
 - ⑤ 기타 _____
3. 내가 집에서 동생(누나, 형, 언니, 오빠 - 형제가 없으면 다른 사촌이나 가까운 친구)과 다투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① 형제끼리는(친구끼리는) 서로 아끼고 다정하게 지내야지.
 - ② 그만 두지 못해! 왜 너희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
 - ③ 형제간에(친구간에) 이렇게 우애가 없으니 내가 걱정이 되는구나.
 - ④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싸우려 들면 친구들도 너를 사귀려 하지 않겠지.
 - ⑤ 기타 _____
4.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나 학원에 가기가 싫어서 피를 부리면, 이 때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① 결석을 하고도 내일 공부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 ② 학교(학원)에 안 가면 선생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 ③ 피부리지 말고 혼나기 전에 어서 학교(학원)에 가라.
 - ④ 학생이 이유 없이 결석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 ⑤ 기타 _____
5. 내가 밖에서 들어와 옷과 가방을 거실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져 놓았을 때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① 자기 물건은 바로 해 놓을 수 있어야지.
 - ② 옷하고 가방이 그게 뭐야? 제자리에 갖다 놓으렴.
 - ③ 네가 네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면 내가 다시 정리를 안 해도 되잖니.
 - ④ 네 물건을 그렇게 아무데나 두면 다음에 내가 찾기 힘들고 방도 지저분해지겠지.
 - ⑤ 기타 _____

6. □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는데 그 당시 할 일이 있어서 ‘싫어’라고 대답하였다. 이 때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① 싫더라도 내가 바빠서 그러니 도와주면 좋겠구나.
 - ② 내가 말하는데 ‘싫어’가 뭐야. 내가 시키면 해야지.
 - ③ 잔소리 말고 빨리 갖다와. 안가면 혼낼거야.
 - ④ 네가 심부름을 다녀오면 내가 용돈을 줄게.
 - ⑤ 기타 _____
7. 식구들과 저녁밥을 먹다가 내가 실수로 물그릇을 쏟았다. 이 때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① 어서 걸레 갖다 닦아.
 - ② 밖에 나가서는 조심해라. 사람들이 흥분다.
 - ③ 실수로 그랬으니 괜찮다.
 - ④ 다 큰 애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 ⑤ 기타 _____
8. 내가 친구의 핸드폰이나 MP3(기타 어떤 물건)을 부러워하면서 사달라고 조른다면 □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①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
 - ② 네가 자꾸 그러면 내 마음도 속상하단다.
 - ③ 내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자꾸 조르면 너의 기분도 나빠지겠지.
 - ④ 안돼! 계속 조르면 혼난다.
 - ⑤ 기타 _____
9.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께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때 내가 계속해서 놀겠다고 하면 □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① 공부할건 다하고 놀아야 바른 학생이지.
 - ② 매일 놀기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하니? 그만 공부해!
 - ③ 공부 안하고 놀기만 하면 성적이 떨어져서 속이 상할 거야.
 - ④ 공부를 안 하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겠지.
 - ⑤ 기타 _____

10. 아침에 날씨가 추워서 □께서 겉옷을 더 입고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냥 가겠다고 한다. 이 때 □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① 어른 말씀을 들어야지. 내 말 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니?
- ② 그대로 가면 감기가 들어서 아플지도 몰라.
- ③ 너 왜 내 말 안 듣니? 입고 가라면 어서 입고 가!
- ④ 네가 안 입고 가면 내가 너 감기 걸릴까봐 걱정하잖니.
- ⑤ 기타_____



아래 내용들은 여러분이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일동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항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을 **하나만** 골라서 체크(✓ 또는 ●)해 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③ ④
 ②: 약간 그렇다 ① ● ③ ④
 ③: 대체로 그렇다 ① ② ● ④
 ④: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롭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4.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5.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6. 자주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7. 아무런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8. 슬프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9. 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	①	②	③	④
11. 나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2.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13. 꿈쩍하기가(움직이기가) 싫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4.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5.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6. 때때로 울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17. 친구들과 말을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20. 쉽게 지치고 항상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2. 속상한 일들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3. 쓸쓸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불평, 불만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25.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조리 부숴버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아래 내용들은 여러분이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6개월 동안**의 감정이나 생각, 행동들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항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을 하나만 골라서 체크(√ 또는 ●)해 주세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③ ④ ⑤
-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① ● ③ ④ ⑤
- ③: 그저 그렇다 ① ② ● ④ ⑤
- ④: 대체로 그렇다 ① ② ③ ● ⑤
- 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화가 나면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진 돈을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고르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말을 생각나는 대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기분 내키는 대로 순간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갑자기 내 마음을 견잡을 수 없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8. 성격이 급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9. 흥분하면 진정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결정을 해버리고 후회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끔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행동을 한 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쉽게 단념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미친 듯이 날뛰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가끔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지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때때로 심한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